

# 한·미 노인자살률의 비교 연구와 정책적 시사점

김형수  
호서대학교

## A Comparative Study on Elderly Suicide Rat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Hyung-Soo Kim  
Hoseo University

**요약** 노인자살률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대하여 다수 국가 간 비교분석은 있어도 우리나라와 특정 국가와의 집중적인 비교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일원으로서 노인자살률의 큰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노인자살률 증감률의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거시 사회·경제적 요인과 노인자살률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일차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지난 20년간(1990-2009)의 노인자살률과 사회구조적 요인간의 경향분석과 동시에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기초로 우리사회의 노인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 노인자살률, 비교연구, 사회경제적 요인, 예방,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Any comparative study has not been done between Korea and a certain country about the social economic factors of elderly suicide rates, even though there has been comparative studies among several nations. Therefore, this study is going to reveal how the macro-social economic factors are related to elderly suicide rates based o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show great gap of elderly suicide rate and have completely different aspect of increasing and decreasing rate of elderly suicide, as members of OECD. For this, trend analysis has been done between elderly suicide rates of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past twenty years(1990-2009) and social economic factors, and correlation analysis also has been done at the same time. After all, this study is going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elderly suicide in our socie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Key Words** : elderly suicide rates, comparative study, socio-economic factor, prevention, policy implications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0144).

Received 16 December 2015, Revised 20 January 2016

Accepted 20 February 2016, Published 28 Febr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Hyung-Soo Kim(Hoseo University)

Email: kimhs@hoseo.edu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세계에서 유례없이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전개되는 예상기간이 빠른 국가로서, 한국은 노인의 자살률까지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을 살펴보면 1995년도에 23.6명이었던 것이 10년 후(2005년)에는 80.3명으로 나타나 세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13]. 이는 미국(2005)과 일본(2006)의 노인자살률이 각각 14.6명과 29.2명인데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2003년까지 4위에 머물렀던 순위가 2004년 이후로는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다[4,15,16]. 노인자살률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발생하는 다양한 노인문제 중의 하나이며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노인자살률의 감소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노인자살이 우리사회에서 사회전체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그리하여 최근 노인자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연구들[1,4,5]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우울이나 자살생각(자살충동) 등을 주제로 하는 심리학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3].

그러나 한국노인자살률의 지속적 증가 이면에는 경제적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적 통합 약화 그리고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반인 가족지지체계의 붕괴 등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자살은 개인적 붕괴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취약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거시 구조적 차원에서 노인자살 요인을 규명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와 다른 사회의 자살률의 변화와 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연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자살률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학문적 조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 상당수가 전통적인 Durkheim의 자살이론과 분석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OECD 전체 국가들의 노인자살의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들(노인부양비, 사회범죄율, 인터넷 사용률, 기대수명, GDP, 도시화, 출산율, 가족규모와 가족구조, 실업률, 소득불평등수준, 이혼율, 인구성장률, 공공지출비 등)을 검토하고 있다[6,7,8,9,10]. 이 같은 맥락에서 국내연구로

서 [5]은 한국을 포함한 OECD 24개국의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경제발전정도, 노인빈곤율, 노인복지지출비,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12]의 자살이론과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도출된 그 연구결과는 노인자살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계가 국가별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특정 원인이 다른 조건과 결합될 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기존의 연구들이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노인자살률을 거시적 요인으로 분석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으나, 다수국가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특정 국가 보다 유독 높은 이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는 노인자살률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대하여 OECD 국가간 비교분석은 있어도 우리나라와 특정 국가와의 집중적인 비교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일원으로서 노인자살률의 큰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노인자살률 증감률의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거시 사회·경제적 요인과 노인자살률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일차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노인자살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노인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내용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지난 20년간(1990-2009) 노인자살률의 현황과 추세의 차이를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변수의 자료출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구조적(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차이를 Durkheim의 사회통합이론으로 규명하였다. 이론의 핵심은 특정 사회의 자살률은 사회통합(이기적 자살)과 사회규제력(아노미적 자살)의 정도의 차이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12]. 이를 위하여 양국의 노인자살률과 대표적인 사회규제(경제성장률과 실업률)와 사회통합(노인부양비,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요인 간의 경향분석

과 동시에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한정된 비교연구라서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다변인분석인 회귀분석은 활용하지 않았다. 셋째, 양국 노인자살률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국 노인자살률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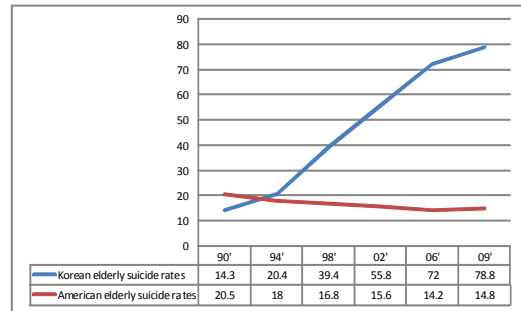
<Table 1> Data Sources of Key Variables and Units

country	variable	source	calculation formula
Korea	elderly suicide rates	KOSIS	(the number of suicides aged 65 and over/elderly population aged 65 and over) × 100,000
	Economic Growth rates	World bank data	the gross rate of GDP over the previous year(%)
	Unemployment rates	World bank data	(the number of the unemployed/labor force population) × 100
	Elderly dependency ratio	World bank data	elderly population aged 65 and over/productive age population(15-64 years old) × 100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KOSIS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ver GDP (%)
	divorce rates	KOSIS	total divorce cases/mid-year population) × 1,000
United States	elderly suicide rates	U. S. CDC Statistics	(the number of suicides aged 65 and over/elderly population aged 65 and over) × 100,000
	Economic Growth rates	World bank data	the gross rate of GDP over the previous year(%)
	Unemployment rates	World bank data	(the number of the unemployed/labor force population) × 100
	Elderly dependency ratio	World bank data	elderly population aged 65 and over/productive age population(15-64 years old) × 100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OECD statistics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ver GDP (%)
	divorce rates	U. S. CDC Statistics	total divorce cases/mid-year population) × 1,000

### 3. 한국과 미국 노인자살률 현황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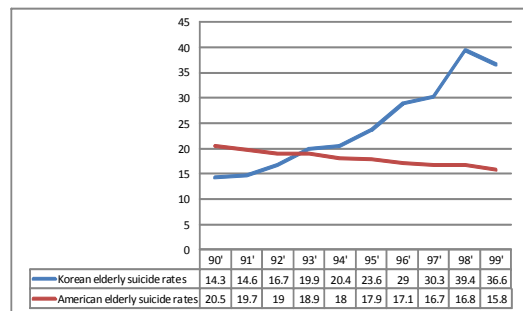
1990년에서 2009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노인자살률 현황을 보면, [Fig. 1]처럼 한국은 1990년 이후 계속해서 노인자살률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14.3명, 1994년 20.4명, 1998년 39.4명, 2002년 55.8명, 2006년 72명, 2009년에는 78.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1990년 20.5명에서 한국보다 노인자살률이 높

았지만 이후 감소하여 1994년에는 18명, 1998년 16.8명, 2002년에는 15.6명, 2006년 14.2명 2009년 14.8명으로 감소 또는 정체하였다[13].



[Fig. 1] Elderly suicide rates in Korea and United States

한국은 IMF, 신용카드 대란 등 국내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인자살률이 크게 증가 하고 사회적으로 안정기에는 노인자살률이 다소 등락의 폭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노인 자살률은 사회현상의 변화에 큰 흔들림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노인의 사회경제적인 원충대책을 마련하였음과 무관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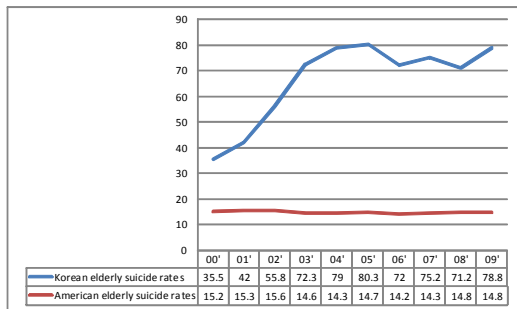


[Fig. 2] 1990s elderly suicide rates in Korea and United States

[Fig. 2]에 제시한 1990년에서 1999년 한국 노인자살률은 1999년도만 제외하고 모두 증가 하였다. 1990년에서 1992년까지 3년 동안 노인자살률은 한국은 미국보다 노인자살률은 낮았다. 한국은 1990년 14.3명 미국은 20.5명, 1991년 한국은 14.6명 미국은 19.7명, 1992년 한국은 16.7명 미국은 19명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낮더니 1993년

부터 한국은 19.9명 미국은 18.9명으로 한국이 앞서더니 계속해서 미국보다 높은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미국은 199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 현상을 나타냈다.

[Fig. 3]에 제시한 2000년에서 2009년까지 한국과 미국의 노인자살률 현황을 보면, 한국의 노인자살률이 2001년 42명에서 2002년 55.8명으로 전년대비 13.8명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72.3명으로 전년대비 16.5명 증가하여 전년대비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해였다. 2000년 35.5명에서 2005년 80.3명으로 급속하게 노인자살률이 증가하더니 2006년에 72명으로 다소 추축하더니 2009년에 78.8명으로 노인자살률이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미국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노인자살률이 15명대를 유지 하더니 2003년에는 14.4명으로 감소하여 2003년 이래로 2009년까지 14명대를 유지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13,14].



[Fig. 3] 2000s elderly suicide rates in Korea and United States

## 4. 자료분석 결과

### 4.1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추이

#### 4.1.1 노인자살률과 경제성장률

한국노인자살률은 1990년 14.3명에서 계속해서 증가하여 IMF 때인 1998년 경제성장률이 -6.9%일 때는 39.4명으로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의 저성장이 지속됨으로 인해 노인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3년 또 한 번의 경제위기인 신용카드 대란 때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4.4%로 감소하여 2.8%로 나타나자 노인자살률은 전년대비 17명이나 증가한 72.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리하여 2009년에는 78.8명으로 20년 만에 노인자살률이 5.5배가량 증가하였다[13,16].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노인자살률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경제성장률이 감소할수록 노인자살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1990년에서 1992년까지 우리나라보다 노인 자살률이 높았으나 계속해서 감소추세로 보여 2009년 14.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자살률에 경제성장률이 미치는 영향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1991년, 2008년, 2009년에도 노인자살률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14,16]. 한국은 노인자살률이 경제성장률에 관계가 깊으나 미국은 노인자살률이 경제성장률과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1.2 노인자살률과 실업률

한국의 노인자살률과 실업률을 보면 1993년 실업률이 2.9%일 때 노인자살률이 19.9명이었고, 1996년 실업률이 2%대로 감소할 때 노인자살률은 29명으로 증가하였고, 1998년 IMF 시절 실업률이 7% 증가하였을 때는 노인 자살률이 39.4로 증가했으나 2006년에서 2008년 사이는 실

<Table 2> economic growth rates in Korea and United States

Year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Korean elderly suicide rates	14.3	14.6	16.7	19.9	20.4	23.6	29	30.3	39.4	36.6	35.5	42	55.8	72.3	79	80.3	72	75.2	71.2	78.8
economic growth rates	9.2	9.4	5.9	6.1	8.5	9.2	7	4.7	-6.9	9.5	8.5	8	7.2	2.8	4.6	4	5.2	5.1	2.3	0.3
American elderly suicide rates	20.5	19.7	19	18.9	18	17.9	17.1	16.7	16.8	15.8	15.2	15.3	15.6	14.6	14.3	14.7	14.2	14.3	14.8	14.8
economic growth rates	1.9	-0.3	3.4	2.9	4.1	2.5	3.8	4.5	4.4	4.9	4.2	1.1	1.8	2.6	3.5	3.1	2.7	1.9	-0.4	-3.5

<Table 3> unemployment rates in Korea and United States

year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Korean elderly suicide rates	14.3	14.6	16.7	19.9	20.4	23.6	29	30.3	39.4	36.6	35.5	42	55.8	72.3	79	80.3	72	75.2	71.2	78.8
unemployment rates	2.5	2.4	2.5	2.9	2.5	2.1	2	2.6	7	6.3	4.4	4	3.3	3.6	3.7	3.7	3.4	3.2	3.2	3.6
American elderly suicide rates	20.5	19.7	19	18.9	18	17.9	17.1	16.7	16.8	15.8	15.2	15.3	15.6	14.6	14.3	14.7	14.2	14.3	14.8	14.8
unemployment rates	5.6	6.8	7.5	6.9	6.1	5.6	5.4	4.9	4.5	4.2	4	4.7	5.8	6	5.5	5.1	4.6	4.6	5.8	9.3

<Table 4> elderly dependency ratio in Korea and United States

year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Korean elderly suicide rates	14.3	14.6	16.7	19.9	20.4	23.6	29	30.3	39.4	36.6	35.5	42	55.8	72.3	79	80.3	72	75.2	71.2	78.8
elderly dependency ratio	7.4	7.5	7.7	7.9	8.1	8.3	8.6	8.9	9.3	9.6	10.1	10.5	11.1	11.6	12.1	12.6	13.2	13.8	14.3	14.7
American elderly suicide rates	20.5	19.7	19	18.9	18	17.9	17.1	16.7	16.8	15.8	15.2	15.3	15.6	14.6	14.3	14.7	14.2	14.3	14.8	14.8
elderly dependency ratio	19	19.2	19.3	19.4	19.4	19.4	19.3	19.2	19	18.9	18.8	18.6	18.5	18.5	18.5	18.5	18.5	18.7	19	19.2

업률이 감소하여도 노인자살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즉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실업률과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1990년 실업률 5.6%일 때 자살률은 20.5명이었으나 1992년 7.5%로 증가했을 때 노인자살률은 19명으로 감소하고, 즉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노인자살률은 감소했다. 하지만 1993년 실업률이 6.9%에서 2000년 실업률이 4% 감소할 때 노인자살률은 1993년 18.9명에서 2000년 15.8명으로 감소하였다. 즉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노인자살률이 감소한 현상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1년 이후는 실업률이 작은 폭에서 증가와 감소를 하다 2009년 실업률이 대폭 상승한 9.8%인데도 노인자살률은 14명대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13,14,16]. 미국의 실업률 역시 노인자살률과 뚜렷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4.1.3 노인자살률과 노인부양비

한국은 뚜렷하게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면 노인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1990년 노인부양비가 7.4%일 때 노인자살률이 14.3명에서 1994년 노인부양비가 8.1%로 증가하면서 노인자살률은 20.4명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 노인부양비 10.1%일 때 노인자살률이 10년 만에 2.4배 증가현상을 보이더니 2009년 노인부양비가 14.7%일 때 1990년에 비해 노인자살률이 무려 5.5배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노인부양비가 커다란 변동 없이 1990년에서 1998년까지 19%대, 1999년 이후 18%대를 유지하였는데 노인자살률은 1990년 20.5명에서 1998년 16.8명, 1999년 15.8명, 2003년 14.6명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09년에는 노인부양비 19%로 증가되면서 노인자살률이 14.8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13,14,16]. 한국은 노인부양비가 증가 할수록 노인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지만 미국은 그 만큼 밀접한 관계는 아니며 단지 일정 부분 노인부양비의 증감에 따라서 노인 자살률이 변화하는 현상을 보인다.

#### 4.1.4 노인자살률과 사회복지지출비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사회복지지출비가 증가할수록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보인다. 1990년 사회복지지출비가 2.8%일 때 노인자살률은 14.3명이었던 것이 1999년 사회복지지출비가 6.2%일 때 노인자살률은 36.6명으로 10년 만에 2.5배 증가하였다. 한국은 노인자살률은 지난 20년 동안 사회복지지출비가 2.8%에서 9.6%로 세 배 이상으로 증가하여도 노인자살률이 14.3명에서 78.8명으로 5.5배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사회복지지출비가 증가할수록 노인자살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미국은 1990년 사회복지지

<Table 5>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in Korea and United States

year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Korean elderly suicide rates	14.3	14.6	16.7	19.9	20.4	23.6	29	30.3	39.4	36.6	35.5	42	55.8	72.3	79	80.3	72	75.2	71.2	78.8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2.8	2.7	2.9	3.0	3.0	3.2	3.4	3.7	5.1	6.2	4.8	5.3	5.1	5.4	6.1	6.5	7.5	7.7	8.4	9.6
American elderly suicide rates	20.5	19.7	19	18.9	18	17.9	17.1	16.7	16.8	15.8	15.2	15.3	15.6	14.6	14.3	14.7	14.2	14.3	14.8	14.8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13.6	14.5	15.2	15.5	15.4	15.5	15.3	14.9	14.9	14.6	14.5	15.1	15.9	16.2	16.1	16	16.1	16.3	17	19.2

<Table 6> divorce rates in Korea and United States

year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Korean elderly suicide rates	14.3	14.6	16.7	19.9	20.4	23.6	29	30.3	39.4	36.6	35.5	42	55.8	72.3	79	80.3	72	75.2	71.2	78.8
divorce rates	1.1	1.1	1.2	1.3	1.4	1.5	1.7	2	2.5	2.5	2.5	2.8	3	3.4	2.9	2.6	2.5	2.5	2.4	2.5
American elderly suicide rates	20.5	19.7	19	18.9	18	17.9	17.1	16.7	16.8	15.8	15.2	15.3	15.6	14.6	14.3	14.7	14.2	14.3	14.8	14.8
divorce rates	4.7	4.7	4.8	4.6	4.6	4.4	4.3	4.3	4.2	4.1	4.1	4	3.9	3.8	3.7	3.6	3.7	3.6	3.5	3.4

지출비가 13.6%일 때 노인자살률은 20.5명에서 1993년 사회복지지출비가 15.5% 일 때 노인자살률은 18.9명으로 2003년에는 사회복지지출비가 증가해서 16.2%일 때 노인자살률은 14.3명으로 감소하여 2003년 이래로 14명대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09년에는 14.8명으로 나타났다[13,14,15].

4.1.5 노인자살률과 이혼율

한국은 이혼율이 증가할수록 노인자살률도 동시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990년 이혼율 1.1%에서 1997년 2%, 2009년 2.5% 증가하면서 노인자살률은 1999년 14.3명, 1997년 30.3명, 2009년에는 78.8명으로 노인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미국은 이혼율이 감소하면서 노인자살률도 동시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 이혼율이 4.7%에서 노인자살률은 20.5%, 1994년 이혼율 4.6%에서 노인자살률은 18명, 1998년 이혼율이 4.2% 감소하면서 노인자살률 또한 감소하여 16.8명이었고, 2003년 역시 이혼율이 3.8% 감소하면서 노인자살률은 14.6명으로 낮아졌다. 이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혼율이 3% 유지되면서 노인자살률 역시 14명대로 유지되고 있다[13,14]. 한국은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노인자살률이 증가현상을 보이고, 미국은 이혼율이 감소하면서 노인자살률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두 나라 모두 이혼율과 노인자살률이 상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

<Table 7>은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구조적 요인(경제성장률, 실업률, 노인부양비,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노인부양비,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positive relationships)를 나타내고 있어 노인부양비,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이 증가 할수록 노인자살률도 증가함을 나타냈다. 역설적으로 이론적 추론과는 달리 사회복지지출비가 증가 할수록 노인자살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아직 노후 소득보장과 고용보장 등 사회보장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한 관계로 사회복지비지출의 단순 증가 자체가 노인자살률 감소를 담보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노인자살률과 경제성장률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적 관계(negative relationships)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즉 경제성장이 증가 할수록 노인자살률이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노인부양비가 0.954로 가장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그다음이 사회복지지출비 0.885, 이혼율 0.807. 경제성장률 -0.452 순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로 한국의 노인부양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자살이 아노미 자살요인 보다 이기적 자살요인으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노인자살률과 실업률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노인자살률은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Korean elderly suicide rates and socio-economic variables

elderly suicide rates	1					
economic growth rates	-.452*	1				
unemployment rates	.240	-.524*	1			
elderly dependency ration	.954**	-.426	.206	1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885**	-.468*	.373	.962**	1	
divorce rates	.807**	-.446*	.531*	.727**	.686**	1

\*p<.05, \*\* p< .01

<Table 8>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American elderly suicide rates and socio-economic variables

elderly suicide rates	1					
economic growth rates	.090	1				
unemployment rates	.297	-.653**	1			
elderly dependency ration	.715**	-.029	.452*	1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583**	-.639**	.544*	-.113	1	
divorce rates	.932**	.361	.101	.656**	-.730**	1

\*p<.05, \*\* p< .01

실업률 자체 보다는 그로 인한 노인부양의 약화와 소득 불평등과 같은 여타 요인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8>은 미국의 노인자살률과 사회구조적 요인(경제성장률, 실업률, 노인부양비,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미국 역시 한국처럼 노인부양비, 이혼율이 증가할수록 노인자살률이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결과와는 다르게 사회복지지출비가 증가 할수록 자살률이 감소하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미국은 상관관계 계수가 이혼율이 0.932, 노인부양비 0.715, 사회복지지출비 -0.583 순으로 결과가 나타나, 이혼율이 노인자살률에 가장 유의미하게 영향을 나타내었다. 미국사회는 사회통합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이기적 유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사회는 아노미적 요인인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은 노인자살률과 별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국사회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제 몫을 다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노인자살률의 지난 20

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 본 후, 양국의 노인자살률과 거시구조적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그 주요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한국사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사회복지지출비가 증가하면 노인자살률이 증가하고, 미국은 사회복지지출비가 증가하면 노인자살률이 감소하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사회복지지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 자리 숫자에서 지난 20년 동안 머물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 기간 동안 두 자리 숫자에서 계속 증가하여 왔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나 한국은 사회복지지출비가 너무 낮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사회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사회복지지출을 늘려 노인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노령연금과 노인소득보장을 증대시켰다[2]. 그러나 한국은 사회복지지출비가 낮아서 노인복지에 투입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차후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지출비에 노인복지지출을 차지하는 부분을 비교 검토하고,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비의 대폭 증가와 더불어 그중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지출비가 노인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 경제성장률 증가 시에 노인자살률이 감소하고 미국은 경제성장률과 노인자살률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나왔다. [11]가 자살이 정치적 위기보다 경제적 위기 시에 더 민감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쪽은 두 나라 중 한국이다. 한국은 IMF와 신용카드 위기 시에 노인자살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노인에 대한 경제적 완충장치인 사회의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성장률 증가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제성장률이 감소할 시 부양자 및 생산자의 실적이 노인의 자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유추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보다 일찍이 노령연금과 장기요양 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노인자살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감소시켜 왔다[2]. 즉 미국은 경제성장률의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은 완충장치로서의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안전망이 시급하여 무엇보다 기초연금을 실제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경제성장률이 하락 시 노인에게 둘러싼 경제적인 부분과 여러 문제가 발생 시 한시적으로 긴급구호시스템을 가동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노인자살률이 노인부양비와 매우 뚜렷한 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노인부양비와 노인자살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연령인구가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부담이 더 가중될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 즉 의료비, 노인복지 비용의 증가, 노인 부양 대책 등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부양비의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노인부양비의 증가는 노인빈곤의 양상을 더욱 심각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가족역시 노인부양의 부담감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 질 수 있다. 또한 생산인구의 부담이 늘어나 노인인구와 생산인구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부양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연금 및 복지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복지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협동하여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그동안 삶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 제공하여 노인 스스로 경제적 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이혼율이 감소하고 동시에 노인자살률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은 이혼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노인자살률이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노인자살률증가가 발생할 확률이 크므로 이혼율 증가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혼율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복지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축 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결혼 시 예비 부부교육을 보편화 하는 것이 요망되며, 대중매체에서 이혼(특히 연예인들) 사례의 보도 시에 당연시 여기고 미화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한 보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부부문제를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센터의 확충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정책적 차원에서 성인자녀나 본인의 이혼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노인 가족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시스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사회 구조적인 시각으로만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노인자살률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정사회 혹은 국가에 내재된 문화적 가치 혹은 일반적인 사회적 특성이 자살과 관련된 거시적인 사회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자살의 국가 간 비교에서 문화적 이해가 보완적으로 요망된다고 하겠다.

##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0144)

## REFERENCE

- [1] Seong-Yong Kim, Trends in Elderly Suicide Rates and Social Factors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Vol. 19, pp. 181-205, 2004.
- [2] Hyoun-Soo Kim, A Study on Current Situation of the American Elderly's suicide and Prevention



- Programs and Its Suggestions. Social Security Studies, Vol. 18, No. 1, pp.163-182, 2002.
- [3] Hyoung-Soo Kim, Pyung\_Hwa Heo. The Current Trend of Research on Korean Elderly Suicide and Future Research.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36, No. 3, pp.195-212, 2010.
- [4] Jung-Kyun Ryu, Regional Differentials in Elderly Suicide Rates: the focusing on effects of family instability, 1995-2005. Vol. 31, No. 2, pp.21-44, 2008.
- [5] So-Chung Lee, Socio-economic Factors of Elderly Suicide.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6, No. 4, pp.1-21, 2010.
- [6] A. Shah, "A Cross-natio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uicide rates and urbaniz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 38(6), pp. 714-719, 2008.
- [7] A. Shah,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uicide rates, household size and family structure: A cross-national study. In't Journal of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13, pp.259-264, 2009a.
- [8] A. Shah, "Are age-related trends in suicide rates associated with life expectancy and socio-economic factors?", In't Journal of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13(1), pp.16-20, 2009b.
- [9] A. Shah,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uicide rates and the internet: A cross-na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6(3), pp.214-219, 2010.
- [10] A. Shah, "Are Elderly Dependency Ratios Associated with General Population Suicide r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7(3), pp.277-283, 2011.
- [11] B. Petrovich, "Influenc of Socio-economic crisis on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 of suicide in the region of Nis.", 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 17, pp.183-187, 2001.
- [12] E. Durkheim,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 New York: Free Press, 1951.
- [13] <http://www.kostat.go.kr/kosis>
- [14] <http://www.cds.gov/nchs>
- [15] <http://www.oecd.org/statistics>

[16] <http://www.worldbank.org/data>

김형수(Kim, Hyoung Soo)



- 1995년 5월 :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박사(노인문제 및 복지정책)
- 199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실버복지경영
- E-Mail : kimhs@hoseo.edu